

파키스탄은 KINO 오렌지가 TANJUNG PRIOK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진출되길 희망한다.



파키스탄은 Tanjung Priok 항구(자카르타 항구)를 통해서 그들의 주요제품인 Kino 오렌지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길 원한다. 파키스탄은 인도네시아와의 CRA(Country Recognition Agreement) 협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Kino 오렌지가 Tanjung Priok항구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수출될 수 없었다.

“비용의 문제는 이미 정리되었지만 파키스탄은 CRA 협정이 없어 Tanjung Priok을 통해서 Kino 오렌지를 들여올 수 없다.” -Dirjen, Iman Pambagyo(무역부) , 2013/07/15 월.

인도네시아는 검역부와 무역부에서 구성한 팀을 보낼 것이며 그들은 파키스탄 주요 2개 지역에서 Kino 오렌지 제품을 평가하고 인증할 것이다.

“우리 팀은 CRA 협정 진행을 위해 7월 19일 파키스탄으로 출발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문제가 없다면 단지 절차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Iman 은 두 나라 사이에 협정 과정 종료시점을 가장 늦어도 2013년 8월로 보고 있다.

“우리는 절차가 빨리 진행되길 희망한다. 그러나 우리의 검역 시스템은 별도의 진행과정을 거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가장 늦어도 2013년 8월 중순에 이 모든 것들을 종료하는 것이다. 2013년 3월 이후로 이미 파키스탄으로부터 모든 데이터를 받았고 문제가 없었다.” -Iman-

Detik Finance(2013-07-15)